

# 현대·기아차 '내수 독주'



1 그랜저



2 싼타페



3 카니발



4 쏘렌토



5 아반떼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시장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현대·기아차가 부분·완전변경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며 국내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경쟁사인 쌍용, 한국GM, 르노삼성 등은 내놓을 만한 신차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내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개 모델이 전체 승용차 판매량(63만1919대)의 절반인 55.7%(35만1664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내내 '국내 베스트셀링카 1~10위'를 휩쓸며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5만8468대가 팔려 1위에 올랐다. 그랜저는 지난 2016년말 신형 6세대 그랜저가 출시된 이후 국내 시장에서의 패권을 되찾았다. 특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유지비를 아끼려는 실속형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올 상반기 1만2029대가 팔려나가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싼타페는 5만1753대가 팔려 2위를 차지했다. 싼타페는 지난 2월 4세대 모델이 출시된 뒤 3~6월 연속 국내 판매 1위에 오르며 현대차의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외 아반떼(5위·3만5803대), 쏘나타(6위·3만2770대), 코나(10위·2만2216대) 등도 베스트셀링카 10위에 포함시켰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베스트셀링카'는 기아차가 가져갔다.

기아차의 카니발은 지난 3월 부분변경모델이 출시된 뒤 판매량이 급증,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3위(3만7362대)에 올랐다. 4위는 3만5838대가 팔린 기아의 쏘렌토로, 기아차는 2년 연속 국내 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쏘렌토의 상품성을 강화한 '더 뉴 쏘렌토 넘버원(No.1) 에디션'을 지난 2월 출시하며 시장 수성에 공을 쏟았다. 기아 쏘렌토는 지난 5월에는 전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2019년형 '더 마스터'를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경차의 대표 모델인 모닝(7위·2만9612대), 완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선보인 K3(8위·2만4679대), '월드컵 에디션'까지 내놓으며 마케팅을 강화한 K5(9위·2만3163대) 등도 베스트셀링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기아차는 하반기에도 쏘울 완전변경 모델을 비롯, 다양한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대·기아차의 독주를 막을 경쟁사의 차종으로는 한국GM의 경우 미국 '가죽용 SUV' 시장의 인기 제품인 아퀴눅스, 쌍용은 티볼리 아머(Armour)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에디션, 르노삼성은 프랑스 르노의 대표 소형차 '클리오(CLIO)' 등이 꼽히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편, 수입차 중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200이 올 상반기 6875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며 벤츠의 국내 판매량(4만1069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베스트셀링카 1~10위 짝쓸이  
1위 그랜저·2위 싼타페·3위 카니발  
10개 모델 판매량 전체 55.7% 차지



6 쏘나타



7 모닝



8 K3



9 K5



10 코나

# '주행중 화재' BMW 오늘부터 안전진단

전국 10만6000여대 리콜...수입차 역대 최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된 BMW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안전진단이 3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국토부의 리콜 조치에 따른 것으로, BMW측은 다음달 중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개선품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입차 리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리콜 조치 이후에도 주행 중 화재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의 경우 3만5천115대, 320d는 1만4108대, 520d x드라이브는 1만2377대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합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는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BMW는 지난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데 이어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본격 진단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달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 조사와 함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명령하는 한편, BMW 리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캐딜락 전 차종 스마트폰 연계 내비게이션·음악 감상 서비스

캐딜락 전 차종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장착된다.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캐딜락에 적용되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드로이드 OS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을 차와 연결해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감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카카오내비나 멜론, 지니 뮤직 같은 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성인식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주행 중에도 조작 없이 음성명령만으로 전화 발신·수신, 문자 전송, 정보 검색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ATS, ATS 쿠페, ATS-V, CTS, CTS-V, CT6, 에스컬레이드(이상 2016년형부터), XT5(이상 2017년형부터) 등 전 차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